

특집 : 도서관의 장서개발

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 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전문연구원
jekim@kiep.go.kr

서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전문도서관”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본 정의에서 전문도서관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간추리면, 전문도서관은 첫째, 독립된 기관이 아닌 모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며, 둘째, 모기관의 소속원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셋째, 따라서 장서의 구성 또한 모기관의 경영목적 혹은 소속원의 관심주제와 수준에 한정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 비해 소속된 모기관의 활동과 특징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팀과 장서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도서관만이 특징적으로 가지는 장서개발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4월 5일 발효되는 새 「도서관법」에서도 ‘도서관봉사’가 ‘도서관서비스’로 바뀐 것 이외에는 정의가 변하지 않았다(편집자 주).

소속기관 및 도서관 개관

1) 소속기관 개관

본고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속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주로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투자, 지역연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에 이바지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0% 정도인 40여명이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도서관은 외부이용자에게도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이용자 또한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 혹은 대학교수가 그 주요 이용자층을 성형하고 있다.



2) 자료팀 개관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은 각 기관이 속한 모기관의 조직체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지식정보실 내에 자료팀이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팀은 현재 지식정보실 소속 4개 팀 중 하나이며, 정사서 6명과 1명의 업무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사서 6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7.3년이며, 6명중 3명이 문헌정보학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장서개발 현황

1) 일반개황

<표 1>은 2006년 현재 장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경제 분야 단일 주제 전문도서관으로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연구보고서와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중국지역연구자료로

중국본토에서 출판되는 160여종 이상의 통계연감들을 구독하고 있다. 또한 구독 중인 61종의 온라인DB에는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의 시사지를 비롯하여 Elsevier, Oxford University Press, Blackwell Publisher 등에서 출간되는 전자학술저널, EIU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 Oxford Analytica, Emerging Market Information Service 등 전문지역연구 자료DB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행본은 LC 분류법을 이용해 정리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연속간행물은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정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표 1〉 자료유형별 종수

(2006년 12월 현재)

자료 유형	종 수
단행본	30,000
연구보고서	42,000
정기간행물	1,600
온라인 DB	61
디지털원문자료	62,000

2) 자료의 선정

본 도서관의 선정 기준 중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이용자의 요구이다. 단행본이나 보고서 혹은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혹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이용자조사 시 접수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각 이용자가 속한 팀의 팀장의 결재를 득하면, 바로 구입처리 된다. 온라인 DB의 경우에는 여기에 시험서비스 기간을 거친 후 해당부서 부서원들의 피드백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입이 결정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파일구입 등의 여부 등이 신청자와 상의된다.

3) 입수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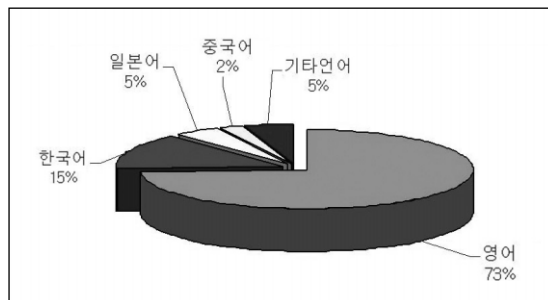
일반적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행사, 벤더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기도 하지만, 요구되는 정보원의 성격상 혹은 국내 다른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아 취급하는 대행사나 벤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직거래를 통해 입수한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발간되는 대다수의 연구보고서류 등은 서점 등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일일이 수서담당사서가 처리하고 있

다. 구입과 구독이외에도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교환 혹은 기증의 형식으로 입수되는 양 또한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들 기관의 자료는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료의 존재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모기관 차원에서 MOU 체결시 발간자료 교환을 하나의 조건으로 하여 자료 입수의 한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MOU 체결기관으로는 일본의 *アジア經濟研究所*, 미국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UAE의 *Gulf Research Centre* 등이 있다.

4) 장서구성의 특징

장서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모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주제와 연구인력의 학문적 배경을 반영하여, 외국어자료가 장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 1〉은 2007년 2월 현재 정리된 자료의 총 종수를 언어별로 구분한 것이다. 영어자료가 전체의 7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어(15%), 일본어(5%), 중국어(2%), 기타언어(5%) 순으로, 외국어 자료의 총 비율이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언어에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는 지난 4년간 자료구입비 내역을 국내외 자료로 구분한 통계이다. 역시 해외자료 구입에 지출한 비중이 꾸준히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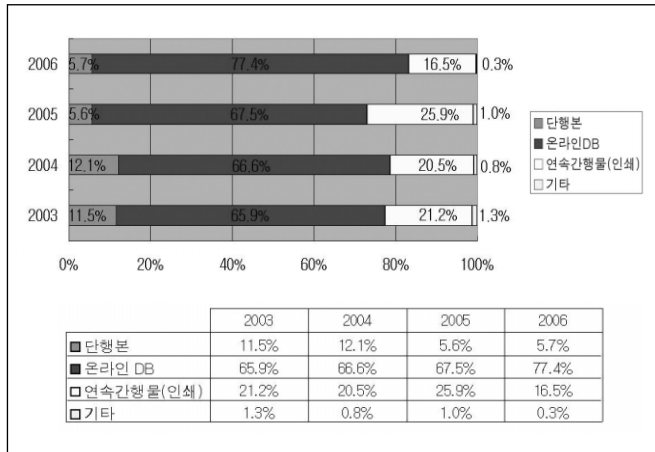


〈그림 1〉 자료의 언어별 구성

둘째, 정보의 유통경로가 짧은 온라인 DB나 연구보고서, 학술지의 비중이 단행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단행본은 저자가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출판되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반면, 다른 유형의 정보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대중에게 발표된다는 특징이

〈표 2〉 자료비 지출 내역

연도	해외자료	국내자료
2003	95%	5%
2004	94%	6%
3005	91%	9%
2006	92%	8%



〈그림 2〉 자료유형별 자료비 지출 비중

있다.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는 지난 4년간 자료 구입비 내역을 자료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온라인DB의 구입비중이 2003년에 65.9%에서 작년에는 77.4%까지 상승하여 온라인DB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DB에는 전문지역연구자료DB를 비롯하여 전자저널과

연구보고서류 중에서 디지털파일형태의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비해 단행본 구입비중은 10%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 5.6%로 대폭 하락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속간행물 인쇄본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온라인 DB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또한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제본 비용이 자료 구입비의 1%정도를 차지하다가 2006년에 0.3%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전자저널 구입으로 인한 제본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결론

일반적인 전문도서관의 성격상 한정된 주제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것으로 본고를 정리 하고자 한다.

첫째, 매우 한정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장서를 보강하고 평가하기 위한 장서개발 혹은 장서평가 도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장서개발 연구는 대학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 등 대규모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형사 혹은 벤더의 대부분은 각 전문도서관의 기관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새로운 정보원을 적소에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온라인DB 공동구매 컨소시엄도 대학도서관 등 전체 주제를 다루는 대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격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모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문도서관 대부분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장서개발, 장서평가 도구와 컨소시엄 모델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사서의 주제전문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사서양성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자를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단순한 자료 입수, 정리 업무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인 장서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주제전문사서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필수적이다.

셋째,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뿐 아니라 운영상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문도서관협의체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지식정보공유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국내 사회과학 전문도서관의 협의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미국의 ARL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도구를 발굴하고, 주제전문사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도서관을 위한 해외정보원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주제전문분야 장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도구를 발굴하고, 주제전문사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도서관을 위한 해외정보원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주제전문분야 장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